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피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세속 벗어난 구도행 원력 높이 평가

1. 명예와 구도  
 『삼국유사』 전 9권 중 제8권에 자리한 「피은」편은 모두 10조목으로 편제돼 있다. 이 조목에는 세간의 「명예」보다 출세간의 「구도」를 택한 열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보통 우리는 출사(出仕)하여 얻는 명예보다 출가(出家) 혹은 은일(隱逸)하여 닦는 구도가 더 높게 평가한다. 불교에서는 이들을 「수행자」라고 하였고, 유교에서는 「유일지사(遺逸之士)」라고 불렀다.

「남지승은 보현수», 「연회도명 문수점», 「해현구경», 「신총괘관», 「포산이성», 「영재유적», 「물계자», 「영여사», 「포천산 오비구 경덕양대», 「염불사」 등 열 조목에 걸쳐 나오는 인물 중 물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명은 모두 승려다. 이 중 신총(信忠)은 초기에 현사(賢士)였다가 나중에 출가해 승려(僧侶)가 된 인물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영축산의 남지, 달라산의 해현, 지리산의 신총, 포산의 관기와 도성, 포천산의 오비구, 남악의 영재, 사체산의 물계자 등은 모두 세속의 번거러움을 피해 산으로 은거한 승려들과 현사이다. 다만 영축산에 숨어 살다가 시장에 가까운 문수점(文殊岾)으로 옮겨 머문 연회(緣會)의 경우만이 좀 특이할 뿐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수행자들은 모두 깊은 산속에서 수행했다. 왕검(王儉)을 비롯한 47명의 단군(檀君)이 그러했고, 고구려의 승랑(승려산)과 보덕(영탑사), 백제의 겸익(미륵불광사)과 현광(웅산) 및 해현(천장암), 가야의 장유(불모산), 신라의 원광(호거산), 안함(흥륜사), 자장(오대산), 원축(종남산), 원효(경산 자인), 의상(소백산) 및 화랑들이 모두 산과 들에서 수행했다.

일찍이 원효는 「발심수행장」에서 수행자가 거처할 곳은 고요한 산속[山林]임을 역설했다. 그는 “높은 산 볼곧 솟은 바위는 지혜로운 이가 들 곳이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있을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주린 창자를 달랠 것이요,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 그 갈증을 식힐 것이다”고 하였다. 해서 원효는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마을에 사는 사람에 비해 부처님은 슬퍼하는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도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성현들이 기뻐한다”고 하였다. 아직 공부가 덜 된 수행자는 인적이 끊어진 한적한 산속에 머물러야만 힘을 기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을에 머물면 소란함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그 소란함을 잠재울 힘을 아직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고운 최치원은 「해인사선안주원벽기」(海印寺善安住院壁記)에서 「주역」(周易) 「리괘」(履卦) 구이(九二)를 인용하며 「유인」(幽人) 즉 「골짜기에 사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인(幽人) 즉 은거하는 사람은 바로

고 곧으며 길(吉)하다고 하였다. 바른 길[正道]을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유인은 세상을 떠나는가? 승려가 어찌면 여기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유가(儒家)의 말을 빌려서 불가(佛家)에 비유해 본 것이다.”

산에는 숲과 나무가 있고 맑은 공기와 물과 바람이 있다. 그리고 커다란 하늘과 더 넓은 대지가 있다. 이 더 넓은 대지를 밟고 서서 맑은 공기와 물과 바람을 맞이하면서 수행의 진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2. 출가와 출사

불자는 세상을 떠나서 출가를 하고, 유자는 세상이 나가 출사를 한다. 모두 집을 나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간다. 불자는 발심을 한 뒤 출세간 하여 수행을 한 뒤 다시 세간으로 되돌아와 입세간한다. 반면 유자는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통해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의 길을 걷는다.

모두 작은 나'에서 출발해 '큰 나'로 나아가지만 '더 큰 나'로 나아가는 불자와 달리 '큰 나'로만 나아가는 유자와는 애초부터 목표의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신라의 남지(南智)는 울주의 영축산(靈鷲山)에 수십 년을 살면서 구름을 타고 [乘雲] 보현행(普賢行)을 펼쳤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범사는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 청량산에 가서 대중을 따라 강론을 듣고 곧 돌아오니, 그곳 승려들은 이웃에 사는 사람인 줄을 알았다. 일연은 구름을 타고 다닌 남지의 수행을 범운지(法雲地) 보살에 이른 대자유의 경지라고 보았다.

고승 연회(緣會)는 영축산에 숨어 살며 『연회경』을 읽고 보현보살의 보현관행을 닦았다. 원성왕이 그를 이상하고 상서로움을 듣고 불려서 국사(國師)를 삼고자 하였다. 연회는 이 소문을 듣고 암자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도망가는 도중 한 노인(문수대성)이 연회의 「도명」(姓名)을 「매명」(賣名)으로 규정했으나 그가 문수대성이라는 변재전녀의 조언을 듣고 국사직을 받아들였다. 백제의 해현(570~627)은 어려서 출가하여 「법화경」을 외우고 삼론을 강의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수덕사에 머물 때 그의 학풍을 흠모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오자 번거롭고 시끄러운 것을 피해 남쪽의 달나산(達摩山)으로 거처를 옮겼다. 평소 고요히 앉아 세상 생각을 잊고 살다가 결국 산속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의 유해를 먹고 허만 남겨 두었는데, 3년 동안이나 붉고 부드러웠고, 뒤에는 돌처럼 단단해졌다. 도속(道俗)이 그것을 공경하여 석탑에 간직하였다.

이 조목 말미에는 중국 천태산에서 지자(智者)의 교관(敎觀)을 받아 신이(神異)함으로 산중에 널리 알려졌던 고구려의 승려 파야(波若, 般若)의 행장이 간략히 서술되



한인거 해제 후 만행에 나서는 스님들의 모습. 피은편에는 명예보다 출가 후 구도행을 걸은 고승들과 유교의 현사들의 일화를 다루며 이들의 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피은 10조목 중 출가승 9명 부귀와 명예 뿌리치고 입산 유가의 현자 일화도 다뤄

어 있다. 해현은 「피은」편에 수록된 유일한 백제 승려다.

신라의 두 성사(聖師)인 관기(觀機)와 도성(道成)이 포산(包山)에 숨어살았다. 관기는 남쪽 재에 암자를 짓고 살았고, 도성은 북쪽 골에 거처하여 서로 10여리쯤 떨어져 있었다. 이들은 구름을 헤치고 달빛에 휘파람을 불며 매양 서로 찾아갔다. 도성이 관기를 오게 하려던 산 중의 나무들이 모두 남쪽으로 향하여 굽어 마치 영접하는 형상을 하여 관기가 그것을 보고 도성에게로 갔고, 관기가 도성을 맞이할 때도 또한 그와 같이 나무가 북쪽으로 굽어 도성이 관기에게 갔다. 두 성사는 오래 바위 사이에 숨어 살며 세상과 사귀지 않고 모두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있었으며, 추위나 더위를 견디고 습기를 막고 부끄러움이 가릴 따름이었다. 일연은 관기와 도성을 「성사」(聖師)로 불렀고 이들의 은거 수행을

「풍류」(風流)로 인식하며 찬사를 덧붙였다.

물계자(勿稽子)는 신라 제10대 내해왕(奈解王) 17년에 신라의 이웃 여덟 나라가 모두 항복하였다. 그때 물계자의 군공(軍功)이 제일이었지만 태자에게 미움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물계자는 “공을 자랑하여 이름을 다투며, 자기를 드러내어 남을 뒤엎는 것은 지사가 할 일이 아니니 힘써 때를 기다릴 뿐이오”라고 하였다. 또 20년 음미년에 골포국(骨浦國) 등 세 나라 왕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갈화(渴火, 屈弗)를 쫓으나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방어하여 세 나라가 모두 패하였다. 이때 물계자가 적을 수십 명 베었으나 사람들이 물계자의 공을 말하지 않았다. 반면 물계자는 그의 아내에게 자신이 오히려 불충(不忠)과 불효(不孝)를 하였다며 머리를 풀고 거문고를 메고 사체산으로 들어가 거문고의 곡조를 만들며 은거하여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실제사(實際寺)의 승려 영여사(迎如師)는 언덕과 품행이 모두 높았다. 경덕왕이 맞아들어 공양하려고 사자를 시켜 불렀다. 영여가 대궐에 와서 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사자를 시켜 절까지 모시고 가게 하였다. 절 문에 들어서면서 일연이 가려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사자

가 돌아와 아뢰니 왕이 이상히 여겨 그를 국사(國師)로 삼았으나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 3. 향가의 공능과 피은의 평가

양산의 포천산 동굴에 다섯 비구가 머물며 염불을 염속하며 극락을 구하였다. 거의 10년 만에 출현해 보살들이 서쪽에서 와서 그들을 영접하였다. 이어 다섯 비구가 각각 연화대에 앉아서 허공을 타고 가다가 통도사 문 밖에 이르러서 머물렀다.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므로 절의 승려들이 나가 보니 다섯 비구가 각기 인성이 무상하고 [無常] 고통스럽고 [苦] 허무하다[空]는 이치를 강설하고 유해를 벗어 버리고 빛을 내며 서방으로 향해 갔다. 그들이 유해를 버린 곳에 승려들이 정자를 짓고 이름을 치루(置樓)라 하였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 피리사(漣里寺)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승려가 항상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성안까지 들려 1천 3백 60리, 17만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가 없었다. 염불 소리가 낮음음이 없이 한결같았다. 이에 그를 괴이하게 여겨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 모두 그를 염불사(念佛師)라 불렀다. 그가 죽은 뒤에 흙으로 진상을 벗어 피장사(秘藏寺)에 봉안하고, 본래 있던 피리사의 이름을 염불사(念佛寺)로 고쳤다. 그 절 옆에 또 있는 절 이름을 양피사(讓避寺)라 한 것도 마을 이름에서 따서 얻은 이름이다.

「피은」편에는 신총(信忠)의 「원가」(怨歌)와 영재(永才)의 「우적가」(遊蹟歌)가 실려 있다. 신라의 신총은 현사로서 동궁 시절의 효성왕을 도와 왕위에 올랐으나 왕은 눈공행상 때에 그를 잊었다. 이에 신총은 왕을 원망하는 향가 「원가」를 지었다.

“한창 무성한 잣나무/ 가을이 되어도 이 울지 않으니/ 너 어찌 잊으랴 하시던/ 우리 떠난 그 날이 고쳐질 줄이야/ 달 그림자도 인 옛 못의/ 흐르는 물결이 모래를 이기듯/ 그분의 모양은 바라보나/ 세상도 그대로 되는 데야. (마지막 구는 망실)”

신총은 이 시를 잣나무에 붙이자 잣나무가 갑자기 시들어 버렸다. 이를 이상히 여긴 왕이 크게 신총을 불러 벼슬을 주니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두 왕대에 걸쳐 총애를 받았던 신총이 말년에 두 친구와 약속을 하고 벼슬을 버리고 남악에 들어갔다. 왕이 두 번이나 불러도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斷俗寺)를 짓고 죽을 때까지 산에 숨어 대왕의 복을 빌겠다고 간청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신총의 노래가 잣나무를 시들게 한 것이나 벼슬을 주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잣나무는 득오곡이 지은 「침기파랑가」에서 보여주듯 청년의 기상을 상징하는 상목수이다. 신총이 태

자를 도와 왕위에 즉위케 하였으나 측근들의 경쟁에 의해 외면되자 자신의 기백과 자존을 담은 향가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자 잣나무가 시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잣나무는 신총의 기백과 자존 그리고 의리의 상징이었다. 일연은 신총이 벼슬을 버리고 출가하여 단속사를 짓고 대왕의 명복을 빌며 생을 마감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그 역시 고려 말기에 총렬왕의 만류를 물리치고 개경을 떠나 「언덕 저편 산」[隔岸有山]으로 나아가 황제의 복을 빌었다[祝吾皇].

영재(永才)는 천성이 활달하여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다. 향가를 잘 지었는데[善鄉歌] 늙은 나이에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현령(大峴嶺)에 이르러 60여명의 도적을 만났다. 도적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영재는 칼날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태연하였다. 도적들이 괴이하게 여겨 이름을 묻자 영재라고 하였다. 도적들은 평소 영재의 향가를 잘 짓는다는 영재라는 이름을 들었으므로 곧 노래를 짓게 하였다.

“내 마음의 하는 짓 모르던 날/ 멀리 ?? 지나치고/ 이제는 숨으로 가나이다/ 오직 울지 않은 파계주(破戒主)의/ 무서운 모습에 다시금 돌릴라라/ 이런 무기야 아무렇지 않오/ 좋은 날을 물리더니/ 아야, 오직 이 오묘직한 선 두둑은/ 못 들어갈 큰 집이 아니외다.”

도적들은 그 노래의 뜻에 감동되어 비단 두 곳을 선사하자 영재가 웃으며 앞으로 사례하였다. “재물이 지옥의 장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잠자 깊은 산중으로 피하여 한평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것을 받겠소.”

그리고는 이것을 땅바닥에 던졌다. 도적들이 또 그 말에 감동되어 모두 칼을 놓고 창을 던지며 머리를 깎고 제자들이 되어 함께 지리산에 숨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영재는 아흔 살이나 살았으니 원성대왕 시대였다.

일연은 「피은」편의 10조목 중 불교 인물 이 아닌 물계자와 짧은 영여사, 포천산 오비구, 염불사 조목 등 4조목을 제외한 6조목에 찬사를 쓸 정도로 이들 인물들의 가품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들은 시간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고 출세간적인 삶을 살았던 고승들이었다.

### 참고문헌

- 리성호, 「사건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 1999).
- 권성로,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6; 1996).
- 김상현, 「삼국유사」(피은편의 의미), 「명예와 구도를 택한 신라인」(신라문화선정판, 2010).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여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밴드, 이부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되면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밴드도 통과 시키고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밴드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회 한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서울신안문화회관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